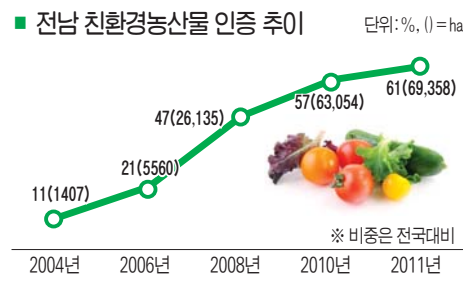


<2부> 유기·생태농이 대안이다

① 대세가 된 유기농

식량 → 생명식품 진화... 전남 지난해 쌀소득 1000억원 늘어

주부 정미경씨(43·광주시 남구 진월동)는 지난해 9월부터 대형마트를 찾는 횟수를 1개월에 4~5회에서 1회로 줄였다. 이전에는 공산품은 물론 농수축산물 등 먹을거리를 살때도 대형마트를 갔지만 이제는 가전제품과 생활용품 등 공산품을 살때만 대형마트를 찾는다. 아파트 앞에 '두리공동체'가 운영하는 마을카페가 생기면서 이곳에서 먹을거리를 그때그때 사먹기 때문이다. 두리공동체는 광주시 남구 대촌동에서 농사를 짓는 젊은이들이 운영하는 카페로 자신들이 재배한 싱싱한 유기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그 결과 전남의 친환경농업은 시행 첫해인 2004년 1407ha로 전국 대비 11%를 차지하던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이 지난해 말에는 6만9358ha로 전국의 61%를 차지하게 됐다. 2위 경북(2만944ha)과 비교해도 4.4배나 많은 것으로 명실상부한 친환경농업의 메카라 할만하다. 전남의 친환경농업 비중은 경지면적 기준으로 전국 대비 23%로 가장 높다.

정씨는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유기농이라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먹을만큼만 사먹기 때문에 오히려 총동구매가 없어서 자주 찾게 된다"고 말했다. 나주시 다시면에서 벼농사를 짓는 임석성씨(45)는 5년전부터 친환경농법으로 무농약 쌀을 생산하면서 6000만원이던 연 소득이 7800만원으로 30% 늘었다. 처음 3년동안은 일손이 많이 가는 친환경농법에 힘드

300평당 소득 77만원... 일반재배 보다 29% 많아
도, 2014년까지 유기농·무농약 비중 1대 2로
농약 사용량 줄어 녹색 이미지·브랜드 가치 상승

들었지만 정착되면서 일손도 줄고 소득도 올라 이제는 한단계 발전된 유기농법으로 바뀐 생각이다. 친환경농업이 농업의 대세가 되고 있다. 전남은 2004년 6월 박준영 전남지사가 취임하면서 친환경농업을 들고 나온 이후 '친환경농업 1번지'라는 입지를 확고하게 다졌다. '녹색의 땅 전남'이란 전남도의 슬로건도 친환경농업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전남도는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도 전체 쌀 소득만 1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 지역 17만3000ha의 벼 재배 면적 가운데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법으로 재배된 면적은 5만8000ha에 달했다.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할 경우 10a(300평)당 소득이 77만1000원으로 일반재배보다 28.9%인 17만3000원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추산이 가능하다.

전남도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유기농 중심으로 친환경농업 비중을 높여 갈 방침이다. 경지면적 기준으로 올해는 30%까지 친환경농업 비중을 높이고 2014년에는 45%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내용 측면에서도 내실을 기해 현재 8.6%에 그친 유기농 비중을 2014년에는 15%까지 높여 유기농과 무농약 비중을 '1대 2' 비율까지 맞출 예정이다.

유기농 비중이 높아지면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 감소는 자연스럽게 동반되게 된다. 전남도는 2009년 ha당 263kg과 8.7kg이던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이 2014년에는 각각 205kg과 6.0kg로 30%씩 줄어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영주 전남도 농업식품국장도 "지난 8년동안 친환경농업을 실시한 결과 전남이 녹색의 땅이란 이미지를 확실하게 다졌고 지역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도 상승해 농가 소득으로 이어졌다"면서 "유기농이 친환경농업의 대세가 된 만큼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시내 한 초등학교의 친환경 무상급식 장면. 친환경농업은 학교급식을 계기로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해 급성장하게 됐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학교급식이 친환경 농업 주도

쌀·과채류 등 44개 품목 계약재배 방식 제공 학생 건강 증진·농가 판매망 확보 '일석이조'

전남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자리잡아온 학교급식의 공이 가장 컸다.

2004년 시작된 전남의 친환경농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은 이때부터다.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했기 때문이다. 전남도와 22개 일선 시·군, 교육청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을 통해 2007년부터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100%를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이 사업으로 지원된 예산만 3371억원으로 276만명(누적 집계)의 학생들이 혜택을 봤다. 올해는 588억원을 학교급식 식재료 사업비로 투입할 계획으로 도내 보육시설과 유치원, 초·중·고교 2506개교 33만4000여명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물론 도내 농가들의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통상 계약재배를 통해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기 때

문에 식재료 지원사업에 투입된 예산 가운데 소폭의 유통마진을 제외한 전액이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의 주머니에 들어간다. 전남도는 현재 쌀과 과채류 등 44개 품목을 계약재배 방식으로 확보해 학교급식에 제공하고 있다. 도는 시군별 급식 소요량의 60%(1만 1967t)인 계약재배 비중을 2013년 80%, 2014년 100%까지 끌어 올릴 방침이다.

전남 친환경농산물은 지난해부터 서울지역 학교급식시장을 뚫으면서 급성장하고 있다. 진출 첫해 전남산 친환경 쌀은 서울 3515개 초·중·고교에 1만7000t이나 공급돼 전체 급식시장의 48%를 점유했다. 과채류도 581개교에 1만3000t을 공급했다.

유영관 전남도 특산물유통 담당은 "올해 수도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중학교까지 확대되고 예산도 2배 이상 증감함에 따라 판매 목표도 2배로 늘렸다"며 "전남이 친환경농업의 메카된 것은 학교급식이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

광신대학교

2012-1 여자신학원 (여전도사과정) 모집

지원자격: 세례교인인 자(학력제한 없음)

수업형태: 2년(4학기) / 주 3일 / 야간제

교육일시: 2012년 3월 5일 개강 / 한 학기 15주 / 매주 월·화·목요일 19:00 - 21:55

수강료: ① 등록금: 700,000원(한 학기당) ② 입학금: 50,000원

제출서류: 입학원서(사진 3cm×4cm 2매) 및 담임교역자추천서 1부 ※ 전형료: 5,000원

혜택: ① 매학기 신청자에 한하여 교회봉사장학금 지급 ② 본교 중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학생증 발급(학생에 준하는 열람 및 대출가능)

여성가족부 인정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교육일시: (총100시간) ▶ 월, 화, 목, 금 오후 6:00~

모집대상: <가> 학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된 교육훈련시설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과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 36 교학저 (062)605-1112, 1063

전북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양식장 직영 도·소매
할전복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치장 완비**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